

주한미군기지이전시설사업(YRP) 진행과 관련하여

About Process of New U.S. Military Base Project (YRP)

오근석 | 전 LH대가기준 TF팀 위원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대한민국의 국토가 아비규환이 되어갈 때 북한의 남침 도발을 응징하고 이 땅을 수호하기 위해 유엔군이 왔고 그 전쟁이 끝나고 휴전선을 경계로 남북이 대치되어 왔다. 전쟁 당시 수십만명의 다국적 군인들이 우리 국군과 함께 대한민국을 위하여 용감히 싸워 이 나라를 지켜주었다.

휴전이 되고나서 한·미 방위조약에 의거 일부 미군이 남아 우리국방을 같이 지켜오고 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용산기지 및 국내 몇몇 미군부대 내 주한미군시설이 유지되어 오다가 한·미 양국의 협상에 의거 미군시설물을 평택 Camp Humphreys와 그 일대를 확장하여 이전하는 대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매스컴을 통하여 알려진 바와 같이 주한미군기지이전시설사업(YRP)이 약 4년여 늦어져왔고 지금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워낙 큰 사업비(약 9조원 이상 예상)와 우리 사회의 큰 이슈로 인하여 국민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이며 설계를 업으로 하는 우리 또한 큰 관심사였다.

2007년 주한미군기지이전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종합사업관리 용역업체(PMC)를 선정해 KC-PMC가 설립되어 사업전반에 관하여 기술적 관리를 맡아왔으나 양국가간의 의견 조율과 이전비

용문제, 용지사용문제 등 각각의 견해 차이를 보이며 업무가 이루어져 지연, 이견노출 등으로 수많은 고비를 맞기도 하였다. 기지이전과 관련 이견이 봉합될 즈음 해서 발주된 첫 사업은 설계·시공의 분리 발주로 진행되었으나 해당 설계 진행상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심각한 문제점이 야기되어 현재는 그 발주 방법을 시공사를 주관으로 하는 '기술제안입찰'로 바뀌어 진행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시설사업(YRP)은 국민이 아는 바와 같이 용산 미군시설 이전을 주축으로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많은 미군 시설들을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일대에 이전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이미 2005년 토지매입이 이루어졌고 매입된 부지는 지표면이 낮아 시설물을 앉히기에는 너무 저지대에 위치하므로 그 이후 수년째 부지 성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성토 작업이 완료된 부지에는 시설물의 설계가 진행 중이며 그 중 일부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시설사업(YRP)의 발주처로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MURO)과 LH공사가 맡고 있으며 한·미 양국정부의 협의에 따라 사업비가 결정되었고 설계비가 책정되어 있으며, 수년 동안 주한 미군 시설물 설계에 참여하였던 건축사들이 책정



미군 막사 조감도



병원 조감도

된 설계비 예산이 본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기에 지난해 대한건축사협회 명의로 설계비 현실화 방안을 공문으로 제출한 바 있다. (여기서 Behind Story를 간략히 소개하면 우리 국방부 담당자들은 설계부문의 업무를 가능한 많은 Local Architects를 활용할 계획으로 업무발주를 추진하였으나 미측 입장은 설계의 규정과 품질을 거론하여 SOFA A/E로 모든 설계를 돌리려는 의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예산으로 집행되는 업무임을 앞세워 현재 Local에서 대부분 설계를 수행시킬 계획임.)

여하튼 지금은 발주방법이 기본설계도서(30% Criteria Packages)를 제공받아 시공사 주도하에 이를 기초로 기술제안 입찰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바뀌었고, 그에 따른 설계 용역비 지급이 시공회사의 권한으로 넘겨져 현재 참여 설계사는 시공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해당 설계비가 결정되고 있다.

여기서 몇 가지 난제를 기술할까 한다.

우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MURO)과 LH공사에서는 미군 시설 설계가 특수한 업무 즉 미군 규정과 Guide-line을 준용하고, 영어와 한글을 병행 기입하는 업무와 작성도서에 따른 Review도 많게는 20여 곳이 넘는 관련 기관의 검토, 즉 미군국동공병단(FED) 및 하와이사령부(POD)까지 검토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그 업무의 특성상 유경험자가 필수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엔지니어 수요가 턱턱지 않아 해외 업체 및 기술자를 참여시키고 License도 미국 자격증을 원칙으로 하며 그 복잡성과 Risk한 부분을 대부분 대형건설사가 책임지고 하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발주처에서도 뾰족한 방안이 없기에 우선 대형시공사를 위시해서 발주를 내고 있으며 여기에 설계사들도 주로 대형설계사 위주로 발탁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연 이 방법이 최선일까?

그동안 미군 시설물 설계는 FED가 주관하여 그 산하의 미국 건축사사무소(SOFA A/E라 함) 3개사가 수십 년째 수행해 오고 있다. 즉 대부분의 기 발주된 설계는 FED In-House 설계실과 상기 3개사가 당연히 수행하였는바 그동안 우리 국내 설계업체는 부분적 하청을 하였거나 극히 일부분만 업무에 참여하여 왔다. 현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MURO) 및 LH공사의 발주방법은 국내 조달청 발주방법을 따르고 있어 우리 사회구조로는 이런 특수화 또는 전문화된 설계업무에 경험 많은 중소기업체들이 참여하기가 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P.Q점수를 입찰안내서에 삽입한 순간부터 P.Q점수가점에 대형 업체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특화된 중견업체는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한편 YRP사업은 중대한 국책사업으로 원활한 진행 및 완료를 위해 모든 국내 건설사 및 설계업체들의 상호 협력을 통한 상생

의 길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설계업체의 용역비 부분에서도 대형건설사가 Leading하면서 진행되는 관계로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저렴한 용역비로 계약되지 않나하는 걱정이 앞서지만 점진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는 상기 공사에 국산자재를 많이 적용하려는 계획 하에 적용되는 국산자재마다 FED에서 인증받을 수 있는 품질과 성능을 갖춘 자재로 승인받기 위한 발판으로 6회에 걸친 자재국산화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자재의 품질화·성능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현재 90여개 Items이 인증을 받아 점차 적용될 계획이다.

전체적인 Road-Map에서 보면 현시점이 매우 중요하여, 금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설계를 겸한 기술제안 입찰로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발주되어 설계기간을 약 1년 내의 그리고 설계 후 약 1~2년의 기간으로 시설물공사 및 준공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시에 많은 양의 공사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 중에 일단의 부지에 수많은 현장이 개설되고 공사 현장의 과부하가 예상되어 이에 따른 충분한 Engineer의 조달문제, 품질보증과 자재의 원활한 조달문제 등 앞으로 풀어야 할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세부진행 사항은 [표1]과 같다.

끝으로 발주처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MURO)과 LH공사는 그동안 양국기간의 의견조율 등으로 여러 난제들을 어렵게 풀어왔지만 국내 설계의 질과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대한건축사협회의 의견을 많이 수용해 주고 참여한 시공사에서도 참여기술자의 기술력 배양과 한국 건축의 미래를 키워나간다는 소명 하에 많은 배려와 모든 참여자의 행운이 함께하길 바란다. [圖]

(표1) YRP 사업 진행현황

2012년 5월15일 현재

사업명 (사업비)	사업면적 (㎡)	발주처 (발주방식)	개찰일	설계기간	공사기간	비고
초·고등학교 (1,426억원)	38,589	LH공사 (실시설계기술제안)	'11.04.26	238일	792일	설계/시공 분리발주
미8군 막사 외 (1,372억원)	56,440	LH공사 (기본설계기술제안)	'11.12.24	318일	880일	
의무여단본부 외 (650억원)	41,506	LH공사 (기본설계기술제안)	'12.04.26	343일	720일	
의무여단막사 외 (865억원)	34,240	국방부 (기본설계기술제안)	'12.05.23	305일	'15.11.20 까지	
병원 및 치과 (1,925억원)	42,579	국방부 (실시설계기술제안)	'12.06.11	-	1,200일	
초·중등학교 외 (1,539억원)	42,216	LH공사 (기본설계기술제안)	'12.06.11	337일	790일	
8군통합본부 외 (2,634억원)	78,978	LH공사 (기본설계기술제안)	'12.07.	323일	615일	
미드타운의료시설 외 (451억원)	9,917	국방부 (기본설계기술제안)	'12.09.03	319일	600일	

(주)상기 내용은 입찰공고 시 내용임

오근석은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아도무건축을 거쳐 주한 미군 설계실에서 10년간 근무하였다. 1992년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건축사사무소 담 건축, 유진건축을 운영하였다. 현재 (주)유진인터네셔널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이며, 대한건축사협회 친환경GF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